



CEO Brief

2021.12. 제2021-22호

CEO Brief는 보험산업 관련 이슈를 분석하여 보험회사 CEO와 유관기관의 기관장분들께만 제공되는 리포트입니다.

공·사 건강보험 역할에 대한 논의

요 약

보험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서 ‘비급여 관리 방안 부재’가 공·사 건강보험 지속성 위기의 공통 원인으로 제기되고, 비급여 관리를 위해 공·사 협력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음에 공감함. 한편, 공공부문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급여본인부담금 보장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민간부문에서는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 개인부담의료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급여본인부담금의 보장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등 공·사 간 의견이 상충함. 향후 인구고령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국민 후생 증대를 위한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사 간에 지속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보험연구원은 「인구고령화 시대,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정책토론회(2021. 10. 29) 개최를 통해 최근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이 직면한 문제와 위기 원인을 진단하고,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공·사 간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함
 - 국민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추진과 실손의료보험의 가입 확대를 통해 빠르게 증가하는 국민의 건강보장 수요 확대에 대응해 왔으나, 공공부문의 재정 부담 확대 및 실손의료보험의 손해를 악화·보험료 인상 악순환 지속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성이 우려되는 상황임
 - 공·사 건강보험은 공급(의료, 보험)과 수요(환자, 피보험자)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인구고령화로 인해 상호 의존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어, 향후 공·사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더욱 요구됨
- 공·사 건강보험은 모두 지속성 위기를 겪고 있으나, 위기 원인에 대해서는 공감과 상충이 공존함
 - 현재 공·사 건강보험이 겪는 위기의 주요 원인이 ‘비급여 관리 방안의 부재’라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였고, 특히 직면한 위기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공·사 건강보험이 국민 건강보장을 책임지는 동반자로서 함께 소통하면서 체계적인 청사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 공감함
 - 한편, 실손의료보험의 비정상적 보장구조(급여본인부담금 보장 등)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증가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 공·사 간 의견이 갈림



CEO Brief

- 공·사 건강보험 지속성 제고를 위해 요구되는 비급여 관리를 위해서 먼저 공·사 간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재 논란이 되는 비급여 중심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에 공감함
 - 공·사 건강보험이 각자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협조를 공식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하위법령 제정 시 공·사의 협력과제에 대한 의제를 명시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사회적으로 일부 의료기관의 과도한 공급이 집중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공·사가 함께 시급성과 필요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과도한 공급이 빈번한 비급여 항목(백내장수술 다초점렌즈, 척추질환 시술 관련)의 우선 급여화 및 지속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비급여 통계 집적을 통해 표준 수가제도 도입을 검토함
- 중장기적으로는 의료 공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됨
 - 비급여의 코드·명칭 표준화 및 진료비용 고시 대상을 확대하여 비급여 관리 체계의 기전 마련 및 소비자(환자)의 알 권리를 강화해 나가야 함
 -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청구의 심사체계 도입 필요성은 서로 공감하였으나, 위상과 인프라를 겸비한 심사평가원이 심사기구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공공부문은 반대의 의견을 표명함
- 한편, 실손의료보험이 공보험의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급여본인부담금 보장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공공부문에서 개진됨
 - (공공 의견) 실손의료보험의 급여 본인부담금 보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았던 2000년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지금 시점에서 보장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실손의료보험의 비정상적 급여 보장확대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함
 - (민간 의견)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부담의료비는 주요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으로, 특히 급여본인부담금이 개인부담의료비의 절반 이상(2019년 55%)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보완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의 급여본인부담금 보장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의 후생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지속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정성희 연구위원
shchung71@kiri.or.kr